

언어는 평등한가?*

- 언어 사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

김 주 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교양교육원)

“각각의 시대에서 지배계급의 사상은 지배적인 사상이다. 즉 사회의 물질적인 힘인 계급은 동시에 사회의 지배적인 정신적인 힘이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계급은 동시에 정신적인 생산수단 역시 관리한다. 그리하여 정신적인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상은 일반적으로 그 지배사상에 예속 당한다. 지배적인 사상이란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들의 관념적인 표현, 사상으로서는 파악된 지배적인 물질적 관계, 그러나니까 한 계급을 지배계급으로 만들어 주는 관계들의 관념적 표현이고, 결국 그 계급지배의 사상일 뿐이다.”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 조현수, 2008: 295에서 재인용)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지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학진흥방안 인문한국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NRF-2007-361-AL0016), 2011년도 어문연구학회 전국학술대회 “한국 어문학과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기조 강연으로 발표되었던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주제어: 언어불평등, 정치경제학,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마르크스주의, 거시-미시연계, 언어인류학, 사회언어학,
Language inequality, political economy,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Marxism, macro and micro link, linguistic anthropology, sociolinguistics

1. 들어가는 말

언어는 평등한가 하는 문제는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가졌을 법한 의문이다. 언어학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교과서들이나 언어학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의 근거는 언어에 대한 두 가지 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는 이론적인 정향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과이다. 진화론적 정향에서는 언어의 불평등함을 위계적으로 위치 지을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우열의 척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며, 기능론적 정향에서 접근할 때는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능력이 동등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다분히 인도주의적인 관점에 서있는 태도 때문이다.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도 당연히 평등하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하지만 실제로 언어가 사용되는 특정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평등한가 하는 의문은 이론적인 정향에 있어서의 논리적인 근거나 인간에 대한 인도주의적 감성에 근거하여 결론지을 수 없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언어적 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실천이며,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좀 더 언어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언어는 특정의 언어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변이형으로 존재하며, 다양한 사회언어학적 변수에 의해 범주화되는 화자들에 의해 특정의 변이형이 선택되어 사용된다. 이러한 선택은 필연적으로 각각의 변이형들에 사회문화적으로 규정되는 가치가 부여되며, 결과적으로 언어공동체 내에는 상이한 가치를 가지는 언어적 자원들이 차별적으로 분포하게 된다. 한 언어공동체 내에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 즉 자유변이라는 현상이 단순하게 병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다.

언어가 평등하다는 언명은 언어가 사회문화적인 환경으로부터 탈맥락화되어 있고,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로부터 유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실상 언어가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암묵적으로나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평등성에 대한 담론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에게만 고유한 특질인 언어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호모 사피엔스로서 인류가 공유하고 있는 언어라는 특질에 대한 지적 탐구로서의 언어학이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의 이해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언어학은 순수하게 언어 내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언어 구조의 보편성 및 특수성, 그리고 그러한 보편성과 특수성이 인간의 존재론적·인식론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왔다. 이러한 언어학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은 실천적 차원에서 인간의 문제를 언어학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즉 언어를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문화적 환경으로부터 탈맥락화 시킴으로써 언어에 가치중립적인 지위를 부여하였다. 언어학에서 이러한 연구 대상의 설정은 자연스럽게 언어 불평등의 문제를 언어학과는 관계가 없는 언어학 외부의 문제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 글은 기존에 언어학이 채택하고 있는 대상과 인간의 실천적 문제로서 언어의 사용을 연결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이다. 크게 보면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간극을 좁히려는 시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순수 언어학의 접근과 언어인류학이나 사회언어학의 접근을 수렴시키려는 시도이다.¹⁾ 지금까지 행해진 많은 언어인류학적·사회언

1) 최근 들어 학문의 융합 또는 복합이라는 이러한 노력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예컨대 김세균(2011)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학문적 경계를 허물고 학문 간의 융합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입장들을 보여주고 있다. 언어의 연구와 연관된 분야에서 이러한 시도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2011)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어학적 연구들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분산된 연구들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준거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하여 언어의 구조와 언어의 사용에 대한 접근들을 통합하고 나아가 사회이론 또는 사회사상과의 연결을 모색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상이한 세 가지 층위 - 언어 구조, 언어적 실천, 언어에 대한 사상적 논의 - 에서 논의되어 왔던 언어에 대한 접근을 연관 지음으로써 언어를 인간의 문제를 고찰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통로로 위치 지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 언어의 연구와 언어사용의 연구

언어의 연구에 있어서 언어 사용이 배제되고 순수하게 언어 내적인 문제로 국한된 데는 언어학에 있어서 몇 가지 계기들에 기인한다. 첫째는 언어학에서 소위 구조주의적 접근의 등장이다. 소쉬르에 의해 제시된 구조주의 언어학의 연구 범위는 이후 언어학에 있어서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즉 소쉬르가 언어체계(language)를 기호 자체의 가치충족적인 체계로서 랑그(langue)와 개별 화자들에 의한 체계의 상황적 실현인 빠롤(parole)로 구분하고, 언어 연구의 중심에 랑그를 위치지음으로서 이후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 사용의 측면인 빠롤을 언어학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즉 소쉬르는 “언어는 그 자체로, 그리고 단독으로 연구(language studied in and for itself)”(Saussure, 1966: 13)되어야 하며, “여타 모든 것들과는 분

책에 실린 글들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넘어서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당위적인 지적과 개별 연구 분야에서의 동향을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향후 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 필자는 이 책이 지향하는 언어의 연구에 ‘인문언어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데는 회의적이다.

리되어 존재(standing apart from everything else)”(*Ibid*, p. 232)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언어 사용의 측면을 언어학적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소쉬르는 보다 명확하게 “말하기라는 사실(speech facts)은 이질적인 무리(heterogeneous mass)”를 이루므로,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어떤 통일성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사실들(human facts)의 범주에 넣을 수가 없다”(*Ibid*, p. 13)고 지적함으로써 빠롤이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통은 구조주의 언어학을 거쳐 생성언어학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다. 촘스키는 언어학의 연구 대상을 “완벽하게 동질적인 언어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화자-청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Chomsky, 1965: 3). 나아가 촘스키는 “언어학이 진정한 학문으로 자리 잡고자 한다면 관찰된 언어사용(observed use of language)은 … 언어학의 실질적인 주제가 될 수 없다”(*Ibid*, p. 4)고 지적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관찰된 실제 발화들 중 많은 것들이 파편화된 것들(fragments)과 다양한 종류의 비정상적인 표현들(deviant expressions)로 이루어져 있기”(*Ibid*, p. 201)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²⁾

소쉬르의 랑그와 빠롤의 구분은 단순히 언어체계의 구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연구와 연관된 일련의 이분법적 구분과 연결되면서 언어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즉 랑그와 빠롤이라는 대립쌍은 사회와 개인, 공시성과 통시성, 개념과 물질, 구조와 행위주체성 등과 같

2) 촘스키의 이러한 입장은 1980년대에 들어 ‘화용론적 능력’(pragmatic 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는 “언어 지식에 대한 보다 완벽한 설명이라면 문법과 다른 체계들, 특히 개념적 구조들의 체계, 화용론적 능력, 그리고 다른 것들까지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Chomsky, 1980: 92)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화용론적 능력은 “다양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용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지식”(*Ibid*, p. 224)으로 하임즈가 제시하였던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은 개념적 구분과 연관되면서, 결과적으로 랑그의 연구는 각각의 대립되는 개념에서 전자의 것들과 관련된 문제들로 한정되었던 것이다(Gal, 1989: 346). 이러한 구분은 생성언어학의 언어능력과 언어수행, 그리고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의 구분으로 연결되면서 지속적으로 언어학의 대상을 전자의 개념에 둬으로써 소위 형식으로서의 언어 그 자체로 언어학의 연구 범위를 국한시켜왔다.

언어를 사회적 맥락에서 유리시킨 또 다른 영향은 보아즈(Boas)의 인류학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보아즈는 언어가 인종이나 문화와 무관함을 지적함으로써 언어를 특정의 인간집단이나 문화적 맥락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Irvine, 1989: 248). 보아즈가 ‘인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동시에 블룸필드(Bloomfield)로부터 시작되는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평가 받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보아즈의 문화상대주의는 언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언어의 평등성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언어 사용에 있어서 불평등의 문제를 언어학적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었다. 그리하여 보아즈 이후 인류학에서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 언어가 맺고 있는 관계의 측면보다는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로 대표되는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즉 언어상대주의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려는 경향이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다.³⁾

유럽과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언어학에서의 이러한 전통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유리시켰을 뿐만 아

3) 일찍이 사피어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문화적 또는 사회적 산물이며 그러한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적 현상이 보여주는 명백한 무법칙성 뒤에는 역학의 세계에서 물리적 과정들이 가지는 규칙성만큼이나 실제적인 형태(configuration)와 경향(tendency)의 규칙성이 있다”(Sapir, 1929: 165-66)고 지적함으로써 언어 연구에 있어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하였지만, 그의 이러한 지적이 실현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나라 언어의 기능을 지시적 기능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사회문화적 실천으로서 복합적 기능⁴⁾을 갖는 언어에 대한 논의를 접어두고 있다.⁵⁾ 하임즈의 표현을 빌면 이러한 언어학의 편향성은 “언어학이 인간의 문제로서 언어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공헌으로부터 언어학을 유리시킨”(Hymes, 1973: 60)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는 촘스키가 제시한 바와 같이 ‘완벽하게 동질적인 언어공동체’ 내에서 ‘이상적인 화자’와 ‘이상적인 청자’ 간의 의사소통을 매개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의 언어공동체⁶⁾에는 다양한 언어 또는 언어의 변이형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화자들은 자신의 언어공동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및 그 변이형에 대해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평범한 화자가 일상적으로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문법적 용인가능성 뿐만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사회적 용인가능성이며, 이는 결국 일상적인 언어의 사용은 단순히 문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적절성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언어의 연구는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그리고 상황이 라는 측면에서 언어에 대한 지식”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언어의 특질과 사회생활의 특질을 함께 기술”(Hymes, 1992: 18)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예컨대 야콥슨은 언어가 지시적 기능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혹은 의사소통상의 기능, 즉 감정표시적(emotive), 능동적(conative), 친교적(phatic), 고차(高次) 언어적(meta-lingual), 시적(poetic) 등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Jakobson, 1960: 353-57).

5) 언어학 내에서도 언어 외적 요인들, 예컨대 사회적 맥락과 청자·화자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을 강조한 연구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오스틴과 설에 의해 제기된 화용론이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보이는 연구에 해당한다. 하지만 화용론에서 언어외적 요소들에 대한 연구는 다른 언어학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자에 의해 만들어진 발화 행위를 다룸으로써 실제 사회적 실천으로서 언어 행위를 다루는 데는 미흡하다.

6) 언어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정이 있지만, 여기서는 ‘언어사용의 규범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한다. 언어공동체의 개념에 대해서는 Morgan(2004)을 참조할 것.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제시된 접근법에서 하나의 언어공동체에 포함되는 다양한 언어들 또는 한 언어의 다양한 변이형들 간의 관계는 평등한가하는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도식화하면 그 언어공동체에서 특정의 언어, 또는 특정의 변이형을 사용하는 화자들 간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밝혀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는 실제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화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므로 언어를 탈맥락화 시키고 화자를 이상화시킨다면 언어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탈맥락화된 상황에서 언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연구자 스스로가 ‘이상적인 화자’가 되어 자신의 직관(intuition)과 내관(introspection)에 의존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부터 얻는 언어에 대한 정보는 언어외적 변수들에 대한 것들을 포함할 수 없다. 언어의 평등성이 언어외적인 요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언어 그 자체로 한정된 연구 방법으로는 언어의 (불)평등성을 밝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번스테인의 연구(Bernstein, 1971)에서 제시된 제한된 어법(restricted code)과 정교한 어법(elaborated code)은 평등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어떤 어법을 어떠한 맥락에 따라 사용하는가에 따라 특정한 어법이 갖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두 어법을 평등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라보브가 연구(Labov, 1966)한 뉴욕시에서의 모음후행 /r/의 발생 여부는 어떤 변이형을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달리 규정되며, 따라서 두 변이형의 관계는 그 사용에 있어 평등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상이한 계급에 속하는 화자가 상이한 변이형을 사용하며, 과도수정이 나타나는 방향이 보다 우위에 있는 변이형으로 향한다는 사실에 기반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특정의 맥락에서 사회문화적인 실천으로서 언어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하다.

언어학에서 말하는 언어의 평등성과 언어인류학 또는 사회언어학에서의 언어의 불평등성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언어학의 연구 범위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언어는 잠재적으로는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불평등하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Hymes, 1992). 이처럼 행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불평등에 대한 현상은 언어 사용과 관련된 일련의 언어 외적, 또는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들 사회언어학적 변수들 각각이 보다 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맺고 있는 관계의 연망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다. 즉 언어적 실천이 보다 넓은 사회적 불평등 체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 있어서 언어의 사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3. 언어 사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⁷⁾ 접근의 배경

언어 사용의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삼아온 언어인류학이나 사회언어학에서 ‘정치경제학’이나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은 1980년대에 들어서 일련의 언어인류학적 작업들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⁸⁾ 이 시기에 이러한 논의들이 등장한 것은 몇 가지 선행한 연구들의 축적에 기반한 것이다.

첫째는 언어인류학에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의 등장이다.⁹⁾ 하임즈에 의해 시작된 이 분야는 사회생활에서 행위자들이 사용하는 ‘말하

7) 여기서 사용하는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의미이다. 전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착취는 그대로 드러나지만, 자본주의체계에서 착취의 본질은 화폐와 시장관계의 베일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학이 필요하다라는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의미로 사용한다.

8) 이에 대한 보다 전반적이고 상세한 논의는 Friedrich(1989); Gal(1989); Irvine(1985, 1989); Kroskrity(2004); Philips(1992, 2004); Woolard(1985) 등을 참조할 것.

9)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는 Saville-Troike(2009)를 참조할 것.

기'(speaking)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언어와 사회구조 간의, 그리고 언어행위와 사회행위 간의 상호관계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그러한 연구의 방법론적 도구로는 민족지학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방법론적으로 민족지적 접근을 택함으로써 실제 사회생활에서 언어사용을 생생하고 밀도 있게 기술하게 되었고, 이러한 기술로부터 언어적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이 작동하는 기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언어목록'(verbal or linguistic repertoire)이라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한 언어공동체 내에는 교체 가능한 다양한 언어형태들, 예컨대 다중언어부호의 집합(set of multilingual codes) 혹은 단일 언어의 하위부호 집합(set of monolingual sub-codes)이 존재하며,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언어목록은 언어공동체 내에서 사용되는 "언어자원의 총체"(Gumperz, 1964: 137-8, 1972: 20-1)로서 사회적 상호작용 및 담화(discourse)에서 다양한 사회적, 상황적 의미를 전달하는 모든 언어적 교체형들을 포함한다. 이 개념이 갖는 중요성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언어공동체 내에 다양한 언어 또는 언어의 변이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실제 사회생활에서 그들이 갖는 사회적 의미나 평가를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현실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언어의 존재 양태가 소쉬르가 제시한 랑그가 아니라 빠롤에 해당하는 말하기에 기반한다는 사실에 초점을 둬으로써 말하기를 사회적 행위로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언어·문화·사회 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었던 것이다.

1960년대에 시작된 의사소통의 민족지학은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적 상호작용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언어학적 변수들에 대한 기술을 축적하여 왔다. 이러한 연구의 성과들이 언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토대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로 언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촉진시켰던 연구로는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를 들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마르크스주의 이론을 지배하였던 정향은 구조주의적인 것이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종속이론가들, 그리고 생산양식 이론가들은 구조적인 결정론에 기초하여 사회구조를 설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등장한 톰슨(Edward P. Thompson)을 비롯한 영국사회사 연구자들은 구조적인 결정론 보다는 인간의 행위주체성(agency)을 중시하는 시각을 보여주었으며, 볼로쉬노프(Valentin N. Voloshinov), 바흐찐(Mikhail M. Bakhtin), 그람시(Antonio Gramsci) 등의 이론가들은 그에 덧붙여 마르크스주의 내에서 인간의 의식·문화·언어 등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켰다.¹⁰⁾

바흐찐은 “소쉬르는 언어의 형식에 덧붙여 이러한 형식들이 조합되어 만들어지는 형식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였다. 즉 말하기 장르들(speech genres)이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하였다”(Bakhtin, 1986: 81)고 지적하면서 언어공동체 내에 다양한 말하기의 방식이 존재함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말하기 장르들이 한 사회 내에서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언어) 진화의 어떤 주어진 시점에서 언어는 (형식적 언어 표지, 특히 음성학적 표지에 따라) 단어의 엄격한 의미에서 언어적 방언들로 계층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사회-이데올로기적(socio-ideological)인 언어로 계층화되어 있다. 즉 사회 집단의 언어들, ‘전문적인’(professional) 언어와 ‘일반적인’(generic) 언어, 세대에 따른**

10) 여기서는 이론가들 각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고 언어의 정치경제학적 접근과 관련하여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 또는 시각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언어 등등으로 계층화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학적인 언어 그 자체는 이러한 이어적 언어들(heteroglot languages)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다시 돌아서 여러 언어들(일반적 언어, 시간-종속적 언어, 기타) 안으로 계층화 된다. 그리고 누구나 알게 되겠지만, 이러한 계층화(stratification)와 이어성(heteroglossia)은 언어 생애에 있어 정적인 불변의 것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언어의 동역학을 담보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계층화와 이어성은 언어가 살아서 발전하는 한 넓어지고 깊어진다. 구심력과 나란히 언어의 원심력이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일을 수행한다. 즉 언어적-이데올로기적(verbal-ideological) 중앙집권화(centralization)와 단일화(unification)와 함께 방해받지 않는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와 해체(disunification)의 과정이 진행된다.”(Bakhtin, 1994: 271-272)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바흐친은 한 사회 내에서 언어가 계층화되어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언어 목록’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언어가 가지는 불평등의 속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바흐친의 ‘이어적 언어들’과 ‘이어성’의 개념은 언어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개념적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람시가 언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국가 언어, 즉 이탈리아의 표준어로 이탈리아어의 발달 과정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그의 헤게모니의 개념은 언어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예컨대 그람시는 언어가 다른 문제들과 연계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문화적 헤게모니의 문제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든 저러한 방식으로든 언어의 문제가 표면으로 떠오를 때마다 이는 일련의 다른 문제들이 전면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배계급의 형성과 확대, 지배 집단과 국민 대중(national-popular mass) 간에 보다 밀접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할 필요, 달리 말하면 문화적 헤게모니를 재조직화할 필요 등과 같은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들 문제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다양한 현상들을 목도하고 있다.”(Gramsci, 1985: 183-4)

그람시는 언어가 언어외적 현상들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문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위의 인용에서 지적하고 있다.

그람시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늘날에도 지배언어의 형성과 관련하여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그람시는 언어 교육과 관련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시각과 아주 유사한 입장을 기술하고 있다.¹¹⁾

“만약 언어를 교육에서 배제시킨다면 … 그렇게 한다면이라도 문법이 ‘실제 생활’로부터 배제될 수는 없다. … 실제로 국민 대중은 교양있는 (educated) 언어를 학습하는 것으로부터 배제된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표준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지배계급의 최상층부는 세대를 거쳐서 표준 이탈리아어를 전수하기 때문이다. … 실로 인간은 (자신이 찬탄하는 모델을 모방하는 등으로) 항상 문법을 학습하고 있다.”(*Ibid.*, pp. 186-187)

그람시의 이러한 언급은 마치 번스테인의 연구를 연상시킬 정도로 언어가 계급적 관계를 고착화시키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즉 그람시의 입장에서는 언어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를 확립하고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언어의 연구에 있어 정치경제학적 접근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였다. 부르디외는 상징자본, 상징적 지배 등과 같은 개념을 언어적 현상과 연결시킴으로써 언어적 실천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유용함을 보여주었다.¹²⁾ 부르디외는 언어가 언어학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자기 완결적이고 총족적인

11) Wiley(2000)의 논의를 비교할 것.

12) 언어에 대한 부르디외의 논의는 Bourdieu(1991)를, 언어인류학적 시각에서 부르디외를 논의한 것은 김주관(2003); Hanks(2005)를 참조할 것.

체계일 뿐만 아니라 권력 관계를 창출하고 행사하는 도구로 파악하였으며, 따라서 언어는 상징자본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징적 지배를 행사하고 필요한 경우 상징 폭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부르디외는 “말하기에 대한 과학적 접근은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예상되는 수용 조건들이 생산 조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Bourdieu, 1977: 21)라고 지적하면서 언어 외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부르디외는 개념상으로 하임즈가 제시한 ‘의사소통 능력’과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실제 행위자의 실천적 능력은 문법적 발화를 만드는 능력과 더불어 스스로 듣고, 복종하고, 믿도록 만드는 능력, 모두를 포함한다. 화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 말하도록 자격이 부여되었음을 확신해야하며, 청자들은 화자들이 그럴만한 가치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Bourdieu, 1991: 7-8)

부르디외는 위에서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자와 청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존재하며, 그러한 불평등한 관계가 서로에 대한 인정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상징적 지배’에 의한 언어적 불평등의 정당성이 공동체 내에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비록 단편적으로 기술하였지만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군의 학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언어의 정치경제학적 본질을 탐색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즉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시각으로부터 언어적 실천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정치경제학적 논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던 것이다.

세 번째로는 1980년대 들어 사회과학 일반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거시적 시각과 미시적 시각을 연계시키려는 일련의 논의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과학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구분되는 두 개의 이론적 흐름이 존재한다. 하나는 제도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수준에 초점을 둔 거시적 이론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인과 그 개인들 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미시적 이론이다. 이러한 구분된 전통은 사회와 개인, 구조와 행위주체성, 형식 및 기능과 유의미한 행위 등의 이분법적 구도를 만들어내며 대립해왔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서면서 거시-미시의 대립적인 접근법의 연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고¹³⁾ 이러한 맥락에서 전통적으로 미시적 기술에 주안점을 두었던 인류학적 접근이 보다 거시적인 담론과의 연관성을 추구하면서 언어인류학에서 언어 사용의 기저에 놓인 정치경제학적 논리에 대한 논의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언어인류학적이고 사회언어학적인 논의들이 시작된 것은 상대적으로 오래되었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정치경제학적인 접근과 연관을 맺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간접적으로 언어 및 언어 사용을 다루는 다양한 층위에서의 논의들이 축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4. 언어 사용의 여러 양상과 정치경제학적 분석¹⁴⁾

언어가 정치경제학적 현상과 연계를 갖는 데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일차적으로 언어가 갖는 다양한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고,

13) 이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Alexander, *et. al.*(1987), Knorr-Cetina and Cicourel (1981)을 참조할 것.

14) 언어 사용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접근한 것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다.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임즈의 영향 아래 민족지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 사용을 분석하는 입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국을 중심으로 할리데이(Halliday)의 기능주의 문법에서 기반하여 페어클라우(Fairclough)와 반 다이크(van Dijk)가 중심으로 개진한 비판담화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언어인류학에서 제도화된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을 연구하는 등 양측의 연구들이 점차 수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자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 다른 이유는 언어공동체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적인 관행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례 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언어가 사회문화적 현상과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양상들을 파악하고, 각각의 언어적 실천들이 어떠한 층위에서 어떠한 정치경제학적 논리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 상의 편의를 위해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연구된 사례들을 바탕으로 언어 사용이 정치경제학적 현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범주화하면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지을 수 있다.¹⁵⁾ 첫째 언어가 화자의 사회 계층의 지표로서 나타나는 경우, 둘째 언어가 자원에 접근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셋째 언어가 직접적으로 재화와 교환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계층의 지표로서 사용되는 언어의 사례는 가장 대표적으로 뉴욕 시에서 모음 후행 /r/의 발생과 사회 계층과의 연관관계를 밝힌 라보브(Labov, 1966)의 연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라보브는 화자의 사회 계층에 따라 모음 후행 /r/의 발음 빈도수를 조사한 결과 하층 계급에서 모음 후행 /r/의 발생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계층이 올라갈수록 그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모음 후행 /r/의 발음 여부는 화자의 사회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한다. 즉 화자가 모음 후행 /r/을 발음한다면 그 화자의 사회 계층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왕한석(2001)과 김주관(2003)의 연구를 사례로 들 수 있다. 왕한석의 연구는 특정 언어공동체에서 호칭어 및 지칭어의 사용에 의해 적서(嫡庶)의 구분이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첩실(妾室)이 정실(正室) 및 적출(嫡出)의 자녀들에게 친족용어가 아닌

15) 여기에 사례로 든 연구들 중에는 연구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학적 시각으로 접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연구들은 포함시켰다.

신분지위용어로 호칭을 한다거나, 서자(庶子) 및 첩실에 대한 친족지칭은 통상적인 친족지칭에다 “서-”를 덧붙여 사용함으로써 호칭 및 지칭의 사용에 따라 화자나 청자의 신분을 드러내 준다.

김주관의 연구는 한 언어공동체 내에서 계급적 배경에 따라 상이한 방언을 사용하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이 사례에 따르면 해당 언어공동체는 언어지리학적으로 경주방언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양반은 안동방언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언어공동체에서는 화자가 어떤 방언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화자의 계급적 배경을 나타내게 된다. 즉 화자가 안동방언을 사용한다면 화자의 계급적 지위는 양반이고, 경주방언을 사용한다면 화자의 계급적 지위는 상민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상의 사례들은 언어공동체 내에서 차별적으로 분포된 언어적 자원이 정치경제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화자의 계급적 지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언어 사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의 한 범주로 설정될 수 있다. 즉 정치경제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위계가 언어적인 사용에 의해 표출되는 언어 양식상의 위계로 전환됨으로서 언어 사용 자체가 정치경제학적 위치를 점하게 되는 현상으로 설정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범주는 정치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의 수단으로서 언어의 사용을 분석한 것이다. 이 범주에서 고전적인 연구로는 번스테인(Berstein, 1971)의 사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번스테인은 영국에서 언어 사용과 관련하여 두 가지 부호 체계, 즉 제한된 부호(restricted code)와 정교한 부호(elaborated)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제한된 부호는 특정한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데 사용¹⁶⁾되며 정교한 부호는 보편적인 추상적 의미를

16) 제한된 부호의 예를 보면 “Three boys are playing football and one boy kicks the ball and it goes through the window the ball breaks the window and the boys are looking at it and a man comes out and shouts at them because they’ve broken the window so they run away and then that lady looks out of her window and she tells the boys off.”(Berstein, 1971: 203)

표현하는 데 유용한 부호¹⁷⁾이다. 이처럼 기능이 다른 두 개의 부호 중에서 중류계층은 두 부호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노동계층은 제한적 부호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호를 사용하는 능력의 차이는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는 지식의 접근에 차별성을 초래한다. 즉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는 지식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정교한 부호를 사용함으로써 정교한 부호를 사용할 능력이 없는 노동 계층의 학생들은 학교 교육에서 제공하는 지식이라는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사례는 어떤 언어적인 부호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특정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든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범주의 또 다른 사례로는 울라드(Woolard, 198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인근에 위치한 까탈란(Catalan) 지역에서 까탈로니안(Catalonian)과 까스틸리안(Castilian)의 사용을 통해 자원에 접근하는 수단으로서의 언어 사용을 분석하고 있다. 스페인에서 지배적인 언어, 즉 합법적 언어(*legitimate language*)는 까스틸리안이며 정부에서 까탈로니안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까탈란 지역에서는 까탈로니안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까탈로니안 화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들이 추구하는 암묵적 위세(*covert prestige*)나 결속(*solidarity*), 대항 이데올로기(*counter ideology*) 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타 지역에서 까탈란 지역으로 이주한 화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다. 타 지역 출신 화자들이 까탈로니안을 사용하는 것은 까탈란 지역이 갖는 발달된 산업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고려하여야 설명이 가능하다. 즉 까탈란 지역으로 이주해

17) 정교한 부호의 사례는 “They’re playing football and he kicks it and it goes through there it breaks the window and they’re looking at it and he comes out and shouts at them because they’ve broken it so they run away and then she looks out and she tells them off.”(*ibid.*) 각주 9와 비교하면 이 두 부호 간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은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이며, 이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는 까스펠리안 보다는 까딸로니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까딸란 지역에 직업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까딸로니안 화자들이며, 이주한 까스펠리안 화자들은 노동자 계층의 사람들로 까딸로니안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자원에 접근하기에 용이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은 힐과 힐(Hill and Hill, 1986)의 메히카노(Mexicano) 사례 연구에서도 찾을 수 있다.¹⁸⁾ 소규모 자작농민이 인구의 주를 이루는 나후아틀(Nahuatl) 공동체에서 스페인어의 습득은 이들이 자본제 영역에서 임금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을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특정의 언어변이형을 사용하는 것이 특정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며, 따라서 화자들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을 얻는 방편으로 특정의 변이형을 사용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범주의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언어 사용이 재화와 직접적인 교환의 수단, 즉 언어적 행위가 상품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어바인(Irvine, 1985, 1989)의 서아프리카 세네갈의 월로프에서 그리오들(griots)의 언어적 연행을 분석한 사례에서 이러한 언어 사용을 찾아볼 수 있다. 어바인에 따르면 카스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월로프에서는 그리오들이 상위 카스트들의 지위를 정당화하거나 상승시키기 위해 일종의 찬송을 연행하게 되는데, 그리오의 기술과 명성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이 결정된다. 그리오에 의한 찬송으로 그 대상이 된 상위 카스트의 귀족은 정치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되며, 그리오는 찬송의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가 경제적 거래의 직접적인 매개가 됨으로써 교

18) 이 연구는 사실 스페인어의 침투에 대한 대항 기제로서 언어혼합주의(linguistic syncretism)의 문제가 주제이다. 하지만 스페인어의 침투, 또는 메히카노 화자들의 스페인어 습득은 이들이 임금노동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환의 수단이 됨을 보여준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하여 언어의 사용이 정치경제학적 현상들과 연관을 맺고 있는 다양한 양상들을 살펴보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언어의 다기능성으로 인해 언어의 사용이 정치경제학적 논리와 연계되는 양상은 더 다양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위의 세 가지 범주로 정리될 수 있다.

5. 맺는 말

언어에 대한 연구는 언어 그 자체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언어의 문제를 고려할 때 언어가 인간의 삶과 연관된 문제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언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이러한 점에서 언어적 실천이 사회적 실천의 한 부분이며 인간의 문제를 조망하는 하나의 시각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의 기능이 다양한 만큼이나 언어 사용이 맺고 있는 정치경제학적 현상들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러한 현상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어 사용의 기저에는 경제적 영역에서 작동하는 정치경제학적 논리가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예로 든 여러 사례에서 보듯이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이득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상호작용의 수단이다. 따라서 언어 사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언어에 대한 “평등주의의 수사 뒤에 위계화된 언어의 서열”(Philips, 1992: 382)을 밝히는 도구로 유용함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언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대부분 언어 이데올로기에 의해 매개되고 중재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연구와도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언어학, 언어인류학, 사회언어학, 사회 이론 등의 분야에서 분산되어 논의되어 왔던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나의 준거틀 하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언어가 보다 인간의 삶과 연관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을 형성하였고 동질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 방언과 표준어, 제도화된 맥락에서의 언어 사용 등의 문제에 있어 이러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 현상과 관련하여서도 언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중요한 분석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임즈가 언어의 사용이 인간의 문제라고 한 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겪고 있는 다문화 현상에 비추어 시의적절한 문제의식이며,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대두한 사회적 문제, 즉 인간이란 무엇이며 또 인간의 의사소통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또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또한 언어의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설정하고 인식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인간의 이해를 위한 포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논의를 수렴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발견적 도구 또는 준거의 틀로서 언어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은 유효한 시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언어의 사용은 본질적으로 불평등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주관(2003), 「언어자원의 자본화 과정과 상징 자본의 형성」, 『한국문화인류학』 36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김세균 편(2011), 『학문간 경계를 넘어』,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왕한석(2001), 「적서 차별의 호칭어 사용과 그 변화」, 『사회언어학』 9집, 한국사회언어학회.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엮음(2011), 『인문언어학의 전망과 과제: 언어·문화의 다면적 접근』,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 조현수(2008), 「팝스에 있어서의 언어와 정치: 언어의 이데올로기성, 계급성 및 정치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17집,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Alexander, Jeffrey C., Bernhard Giesen, Richard Munch, and Neil J. Smelser eds.(1987), *The Micro-Macro Link*,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akhtin, Mikhail M.(1986), *Speech genres and Other Late Essays*,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_____ (1994), *The Dialogical Imagination: Four Essays by M. Bakhtin*, Austn: University of Texas Press.
- Beeman, William O.(1997),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In *Blackwell’s Dictionary of Anthropology*, ed., by Thomas Barfield, London: Blackwell’s.
- Bernstein, Basil(1971), *Class, Codes and Control, Volume 1*,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Bourdieu, Pierre(1977), “Economie des Echanges Linguistiques,” *Langue Francaise* 34.
- _____ (1991), *Language and Symbolic Pow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homsky, Noam(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I.T. Press.
- _____ (1980), *Rules and Represent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riedrich, Paul(1989), “Language, Ideology and Political Economy,” *American Anthropologist* 91(2).
- Gal, Susan(1989), “Language and Political Economy,”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8.

- Gramsci, Antonio(1985), *Selections from Cultural and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Gumperz, John J.(1964), "Linguistic and Social interaction in Two Communities," In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eds. by J. J. Gumperz & D. H. Hymes. American Anthropologist 66(6) Part 2.
- _____ (1972), "Introduction," In *Directions in Sociolinguistics*, eds. by J. J. Gumperz & D. H. Hymes.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Hanks, William F.(2005), "Pierre Bourdieu and the Practices of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4.
- Hill, Jane H. and Kenneth C. Hill(1986), *Speaking Mexicano: The Dynamics of Syncretic Language in Central Mexico*, Tucs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 Hymes, Dell H.(1992), "Inequality in Language: Taking for Granted," *Working Papers in Educational Linguistics* 8.
- _____ (1973), "Speech and Language: On the Origins and Foundations of Inequality Among Speakers," *Daedalus* 102.
- Irvine, Judith T.(1985), "Status and Style in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4.
- _____ (1989), "When Talk Isn't Cheap: Language and Political Economy," *American Ethnologist* 16.
- Jakobson, Roman(1960), "Linguistics and Poetics," In *Style in Language*, ed. by Thomas Sebeok, Cambridge: The MIT Press.
- Knorr-Cetina, Karin, and Aaron V. Cicourel, eds.(1981), *Advances in Social Theory and Methodology: Towards an Integration of Micro- and Macro-Sociolog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Kroskrity, Paul V.(2004), "Language Ideology," In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ed by Alessandro Duranti.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Labov, William(1966),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English in New York City*. Washington, DC: Center for Applied Linguistics.
- Morgan, Marcyliena(2004), "Speech Community," In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ed by Alessandro Duranti.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Parkin, David(1984), "Political Languag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13.
- Philips, Susan U.(1992), "A Marx-Influenced Approach to Ideology and Language: Comments," *Pragmatics* 2.

- _____ (2004), "Language and Social Inequality," In *A Companion to Linguistic Anthropology*, ed. by Alessandro Duranti. Malden: Blackwell Publishing.
- Sapir, Edward(1929), "The Status of Linguistics as a Science," *Language* 5.
- Saussure, Ferdinand de(1966), *Course in General Linguistics*, New York: McGraw-Hill.
- Saville-Troike, Muriel, 왕한석 외 옮김(2009), 『언어와 사회: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입문』, 서울: 한국문화사.
- Wiley, T. G.(2000), "Language Planning and Policy," In *Socio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eds. by S. L. McKay and N. H. Hornberg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lard, Kathryn A.(1985), "Language Variation and Cultural Hegemony: Toward an Integration of Sociolinguistic and Social Theory," *American Ethnologist* 12.
- _____ (1989), *Double Talk: Bilingualism and the Politics of Ethnicity in Catalon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원고 접수일: 2012년 4월 30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4일

ABSTRACT

Are Languages Equal?

- Politico-Economic Approaches to Language Use -

Kim, Joo Kwan

The question, “are languages equal?” might be a common one among students who are interested in languages. The answer is generally affirmative in linguistics, and the affirmative answer seems to be based on two grounds - theoretical and humanistic.

However, the question, “are languages equal in a specific socio-cultural context?” cannot be answer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orientations and humanistic sympathy because linguistic behaviors are social practices and, therefore, are not free from the socio-cultural context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emergence and works of politico-economic approaches to language use, and proposes the politico-economic approaches as a bridge to connect the studies on languages at various instances in humanities and the social sciences.

The exclusion of socio-cultural factors in linguistics was credited by de Saussure and Chomsky, who emphasize the study of language in and for itself. Franz Boas also influenced the trend by mentioning that there is no intrinsic relationship between race, language, and culture. In the 1980s,

however, anthropologists and sociolinguists began to study language use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coming from the opposite position of Saussurean and Chomskyan students.

The rise of politico-economic perspectives in the study of language use is influenced by the accumulation of three precedent studies: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the agent-oriented Marxist perspectives, and the macro and micro link in social sciences.

The empirical studies with a politico-economic perspective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politico-economic factors: index, instrument, and commodity.

The politico-economic approaches can be a useful tool in analyzing language use because linguistic behaviors are linguistic practices which are performed unequally in socio-cultural contexts.